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음 9월 1일) 제19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미륵사지 복원 눈앞 익산서 백제 꿈 실현

전북도가 19일 익산시 백제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조성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에 일반에게 공개될 석탑은 아직 가설 덧집 철거, 주변 정비 등이 남아 있지만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성공사가 완성되면 국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돼 한국 석탑의 모태로 꼽힌다.  
당초 7~9층 탑으로 추정되나, 현재 6층만 남아있다. 미륵사지석탑은 삼국시대 목탑에서 석탑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 준다. 목조건물처럼 돌을 맞춰 가며 쌓았다.  
초층 탑신은 사면이 3칸씩이며, 그 중앙에는 내부와 통하도록 사방에 문이 있고, 탑 안의 중앙에는 네모난 커다란 활주(擡柱)가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석조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3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12편의 전문 학술발표가 이루어졌으며, 16건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또 23회에 이르는 자문회의와 조립설계를 3차례나 시행 했으며, 총 225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됐다.  
이 과정에서 석탑복원을 6층 부분복원안, 6층 전체복원, 9층 전체복원의 3가지 설계안이 대립했으나, 7층 이상의 부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6층 부분복원안을 복원안으로 확정했다.  
또한 석탑복원의 모든 공정을 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파격적 복원처리를 시행해 문화재 복원과정에 시민을 연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로 58m, 세로 31m, 높이 29m의 가설 덧집을 설치했다. 이 덧집은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며, 석탑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월 14일 석탑 1층 십자형 심초석에서 건립당시 봉안한 사리장엄 등 72건 9,947점의 보물 유물 출토가 있었다. 사리공 바닥에 유리판 깔고, 그 위에 사방으로 청동합 6개를 놓고, 합들 사이에 유리구슬을 채운 뒤, 남쪽에 은제관식과 금관들을 넣고, 북쪽에 직물에 쓴 도자 4자루, 동쪽에 1자루, 서쪽에 2자루를 각각 올려놓았다. 그리고 남쪽벽면에 금제사리봉영기를 비스듬히 놓고 정중앙에 사리호 안치했다.  
현재는 5층 옥개석 및 6층부를 조립하고 있다. 석탑복원시 최대한 옛 부재(部材)를 살려 썼다. 처음에는 47% 남짓 옛부재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보존처리를 하면서 72%까지 옛부재의 사용율을 높였다.  
옛 돌의 손상된 부분과 새 재료를 연결하는 데 티타늄 봉을 본격적으로 썼다. 원 재료의 금간 부위는 예폭시 수치로 보강했다. 돌과 돌 사이 빈틈을 메우는 무기질 재료도 새로 개발했다.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륵사지석탑 복원사업은 우리 건축문화재 보존 기술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문화재 복원의 전범이 될 뿐만 아니라 전북 자존감 회복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완성시 국내 最古 문화재  
한국 석탑 모태로 꼽혀  
현재 6층만 남아있는 상태  
도 "전북 자존감 회복 모범"

각 면에는 엔타시스 수법을 쓴 모난 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평방(平枋)·창방(昌枋)을 얹으며, 2층부터 탑신이 벌어지고 옥개석은 초층과 같은 수법으로 표현된다.  
엔타시스는 원주(圓柱)의 윤곽을 중간중간에서 밖으로 굽게 만든 미묘한 곡선, 기둥의 아랫부분을 지탱하는 힘을 표현함과 동시에 외광(外光)에 의해서 기둥 중앙부가 작록하게 보이는 것을 막는다.  
건립연대는 백제 말기의 무왕 때인 600~640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데, 2009년 1월 해체수리 중 발견된 기해(己亥)년명 탑지를 통해 639년(무왕 39)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1915년) 붕괴가 우려된다고 탑의 서측면을 콘크리트를 발라놓아 훼손이 심한 듯 보이나 당시 가장 최선의 공법으로 보강한 것이다.  
석탑 복원은 총 2400여개의 돌조각을 원형 그대로 조립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참고할 다른 예가 없어 모든 부재를 최소 단위로 나누어 분석해야만 조립할 수 있는 세밀한 작업이다.



국정감사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19일 오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6면>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 발효식품의 모든 것 한눈으로 살핀다

전 세계 발효식품의 비즈니스 향연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세계 20개국의 기업인과 바이어, 대사관 상무관을 비롯해 국내외 방송매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과 세계의 발효식품을 집중조명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은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번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국제네트워크 확대 성과가 곧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세계 20개국의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여 오는 10월 23일까지 5일간 생생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 "무주 태권도 성지화, 정부가 직접 나서야"

유성엽 의원, 국감서 "태권도원, 수련기능 없어 반쪽짜리로 전락  
국기원 이전·명예의 전당 건립 조속 실행토록 적극 협조해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음·고창)는 1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기원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한 관련부처가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유 위원장이 국기원이 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현재 국기원 연수원만이 이전해 4~5명의 인원이 내려와 있다"며, "접근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핑계를 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중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중국 소림사는 정자 우 신정국제공항에서 버스로 2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산골에 위치해 있음에도 쿵푸산업의 중심지이자 성지로 기능하고 있다"며, "무주 또한 태권도를 수련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청정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에서 오가기 쉽고, 새만금국제공항, 진입도로 확장 등을 통해 접근성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현재 태권도원은 수련·교육 기능이 없어 사실상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기원 이전을 통해 태권도원 집적화를 이뤘다면 태권도원 위상 제고와 성지화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이사장 또한 "재단 입장에서 현재 이전해 있는 연수원뿐만 아니라 여러 국기원의 기능이 이전해 오면 태권도 세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비로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이 확보되었지만, 국기원과 태권도협회에서 출연하기로 한 5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확보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기원에서 출연하는 3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권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고 법령상으로도 관철되기 어려운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민간에서 출연하기로 한 기부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정부차원에서 단체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국기원과 태권도협회가 약속한 기부금 출연과 국비 예산 집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태권도 위기를 제기할 만큼 태권도를 둘러싼 환경이 그다지 녹록치 않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기원 이전을 통해 이월되어 있는 태권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아울러 태권도원이 진정 태권도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제3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2017. 11. 3. ~ 5.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주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 (063)320-2841 ~ 2